

도덕적 갱신과 율법주의

*이 논문은 지난 1월 21,
개혁주의신행협회 제40 회
정기 총회시의 특강 내용임.

김 성 수
(합동신학교 교수)

I. 서 언

‘도덕’이란 말은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대체로 “올바른 행동 규범” 좀 더 자세히는 “인간이 상호간의 행위에 있어서 따라야 할 원리, 규범의 체계”를 뜻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도덕적 갱신이란 제목은 이미 심각한 도덕적 이탈(逸脫)과 그 교정 내지 회복의 필요성을 함축한다. 말하자면 어떤 사회에서 올바른 행동 규범으로부터 크게 이탈한 현상이 광범하게 관찰되며 그 정도가 심각하여 진지한 고려와 어떤 단호한 조치가 요구되는 상황을 전제한다고 볼 수 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상황이 이러하다는 것은 새삼스럽게 언급할 필요가 없는 줄 안다. 범죄 소식이 혼란스러울 정도로 연이어 전해지며 그것도 상상을 초월한 흉포성의 범죄들이 대부분이요 범죄 발생 계층도 범죄 예상 계층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즉 가난한 우범 지역이나 계층에 국한되지 않고 외적으로는 가장 부유한 계층 등 유무식(有無識), 빈부, 지위, 신분의 차이에 관계 없이 계층을 망라하고 있다. 그 결과 누구도 다른 사람을 믿을 수 없는, 가족간에도 신뢰가 불가능한 사회가 되고 말았다. 이러한 불신은 모든 사람이 올바른 행동 규범을 따라 행동하리라는 기대가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생겨났다고 할 수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모든 사회의 타락 현상의 원인을 정부, 사회 구조, 특정 정치인, 가진 계층에 돌리곤 하였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그 원인과 책임은 어느 특정인과 계층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 전반의 모든 계층, 개개인에게 돌려져야 한다는 사실이 분명해지고 있다. 참으로 이 사회는 도덕이 무너진 사회라는 자탄이 당연하게 들리며, 어떻게든 손을 쓰지 않

으면 안 된다는 급박한 느낌을 누구나 갖게 되었다. 이런 때 뜻있는 사람들과 단체들이 도덕성 회복의 필요를 절감하고 나선 것은 반가운 일일요 여러 기독교인 단체들이 적극적인 활동을 벌이는 것도 당연하다고 하겠다. 정부도 이 일에 관심을 가지고 행동을 시작한 것은 뒤늦은 감이 있고, 또 그 귀추를 지켜보아야겠으나 우선 다행스럽다고 할 수 있다. 교회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어서 비록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교단마다 교정(敎政)의 문란과 목회자와 평교인의 도덕성 문제가 불신자의 입에까지 자주 오르게 되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시정 요구 역시 새삼스런 것이 아니라 해묵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 허락된 시간 동안 잠깐 생각해 보려는 것은 이런 심각한 도덕적 일탈 현상과 그 갱신의 필요성, 또한 이런 필요에 응하여 시도되는 편의상, 또한 필요상 사회적 차원과 교회적 차원으로 나누어 생각해 보려 한다.

II. 사회적 차원

얼마 전 제5공화국 시절, 한국 보수 교회는 사회로부터 독재 정권에 대한 적극적 반대 의사 표명과 행동이 없다는 이유로 따가운 시선과 혹심한 질책, 그리고 거센 사회 참여 요구에 직면한 적이 있다. 교회와 국가의 구별이라는 전통적 원칙에 충실하면서 이 거센 요구를 어떻게 수용해야 하는가에 대해 많은 교회들이 고심하였으며, 제5공화국 중반에 가서는 전국을 휘몰아친 정치적 열풍 속에 적어도 심정적으로는 휩쓸렸던 것이 사실이다. 말하자면 적어도 심정적 차원에서는 교회까지도 그 중 어떤 교회는 설교를 통해서, 또는 서명 운동이나 직접적인 행동으로 국가 사회 현실에 깊이 개입 내지 참여하였으며 또한 사회악의 제1근원으로 독재 정권을 지목하는 사회 분위기에 편승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제5공화국이 끝나고 정치적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자, 소위 민주화라고 하는 것이 시작된 후, 사람들은 새로운 현실에 눈뜨기 시작했다. 사회적 도덕 붕괴 현상이, 정치나 경제권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이 부분에서의 부패가 타영역에 어느 정도 심각한 영향을 주었는가는 논외로 하고—사회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으며 그 원인 역시 정치권에서만 찾기가 힘들다는 깨달음이었다. 정치인들만 부패한 것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부패하였으며, 기업주만 악한 것이 아니라 노동자도 악하다는 사실을, 서로가 자기 이익을 주장하기에 급급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다. 더욱이 현하 사회 범죄 현상은 당장 손쓰지 않을 경우, 사회 붕괴 내지 자멸에 이를 것이 분명해 보일 만큼 심각해졌다. 이러한 때에 민관(民官) 할 것 없이, 사회 각계 각층에서 도덕 붕괴 현상에 대한 심각한

경고의 소리와 도덕성 회복을 호소하는 외침이 들리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으며, 여러 기독교인들이 이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가 이 일에 있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이다. 물론 기독교인은 교회와 국가에 다 같이 속해 있어서 국민으로서의 행동과 교회 일원으로서의 행동이 때로는 지극히 구별하기가 힘들며, 각 행동에 있어서 그 자세, 방법, 범위의 정확한 설정이 까다롭기 한이 없지만 그러나 교회와 국가는 원칙적으로 엄격히 구분되는 제도들이므로 이 일에 대한 교회 나름의 입장은 분명히 있을 수 있고 또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단도 직입적으로 말해서 사회의 도덕적 타락상에 대한 경각심 제고(提高)와 도덕적 갱신을 호소하는 일은, 특히 후자의 경우는 일반 사회의 도덕 운동에 맡겨야 하며—물론 국민으로서 기독교인은 적극 참여할 수 있으나—교회는 그 본질적 사명에 충실해야 하리라고 생각한다. 이 일은 교회가 사활을 걸고 직접적으로 참여해야 할 일이 아니라고 보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일반 사회의 도덕 갱신 운동은 조만간 근본적인 좌절에 봉착하게 되리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저 자신은 천번 만번 이 운동이 좋은 결실을 맺기 바라며 또한 기독교인은 성패에 관계 없이 사회 일원으로서 사회 도덕 갱신 노력을 계속해야 하나 우선 상식선에서 보더라도 이 운동은 실패할 가능성이 많다. 그 이유로서는 전세계적 도덕 퇴행 현상을 들 수 있는데 필자의 우견(愚見)으로는 앞으로 점점 더 심화되었으면 되었지—하나님의 특별한 간섭하심이 없는 한—개선될 희망은 희박한 것으로 생각된다. 모든 것이 국제화되어 가는 추세로 보아 나라 간의 접촉과 동화(同化) 현상은 더욱 빈번하고 용이해질 것이요 따라서 우리 사회가 세계의 일반적 추세와 그 영향에서 벗어나기는 힘들 것이라고 생각된다. 기껏해야 이런 운동이 도덕 퇴행 현상의 속도를 얼마 만큼 지연시킬 수 있느냐, 또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도덕적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느냐는 정도일 것이다. 물론 이것도 무의미하다고 할 수는 없겠다.

인간의 도덕적 능력에 의지하고 호소하는 이 운동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근본 이유는 인간의 도덕적 능력의 본질적 한계 때문이다. 인간의 근원적 타락과 부패성 때문에 어떤 도덕적 노력도 궁극적으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높은 도덕적 이상을 정하면 정할수록 도덕적 갱신의 필요를 절실히 느끼고, 애타게 노력하면 할수록 인간은 자신의 근원적 부패성과 도덕적 무력을 더욱 절실히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필자는 이러한 도덕적 한계 인식에서 나온 좌절감의 표현이 지금 우리가 목적하고 있는 서구의 도덕 붕괴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서구는 부패한 독재 정권하에서 도덕적 타락을 강요당해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민주화된 사회—물론 이것도 상대적이기는 하지만—, 말하자면 비교적 얽매임 없이 스스로 자유롭게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사회로 존재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즉 서구의 도덕적 퇴행 현상은 타율에 의해 강요된 결과라기보다는 자율에 의해, 즉 서구의 도덕적 퇴행 현상을 타율에 의해 강요된 결과라기보다는 자율에 의해 스스로 만들어 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오늘의 서구 사회는 인간을 얽매임에서 풀어 자유롭게 놓아 두면, 그리하여 인간으로 하여금 스스로 그의 모든 도덕적 가능성과 능력을 발휘하게 하면 점진적이기는 하나 무한한 도덕적 개선이 가능하리라는 기대가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보여 주는 좋은 본보기라고 할 수 있다. 자신의 도덕적 능력의 한계 인식은 자기 합리화나 도덕적 노력의 포기에도 인도되기 마련이며 어느 쪽이든지 도덕 퇴행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서구의 도덕 퇴행 현상은 이러한 과정의 결과라고 생각된다.

우리 경우에 있어서 종전에는 사회 도덕의 타락 원인을 악한 독재 정권, 부조리한 사회 제도 등에 돌려 왔다. 그러나 앞으로 민주화 노력에 의해 이런 구조악이 어느 정도 개선될 경우—물론 얼마나 개선될지는 미지수이나— 이런 식의 자기 변명은 점점 힘들어질 것이다. 오히려 제도적 강요나 강제 장치에서 풀려나서 개개인의 자율에 맡겨질 때 자기 자신의 도덕적 한계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모든 악의 원인을 사회 제도와 몇몇 정치인들에게 돌림으로써 은폐되었던 자신의 근원적 타락과 부패를 뼈저리게 인식하게 될 것이다.

교회는 이와 같이 사람들의 의식 속에 스며드는, 점점 명료해지는 도덕적 한계 인식 내지 근원적 부패성 인식에 대해 적당한 수준의 도덕 개선을 유도하거나 호소해서는 안 될 것이며, 적당히 실행 가능한 도덕 개선책을 제시해서도 안 될 것이다. 물론 일반 은총 영역에 속하는 제도인 국가나 일반 사회 교육은 이를 강제할 수도 있고 교육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교회는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정직하게 그 한계 앞에 서도록, 자신의 타락과 부패에 직면하도록 도와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절대적 요구인 율법 앞에서 자신의 영적 실상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바로 이것이 인간의 악과 부패성에 접근함에 있어서 교회가 취하는 자세의 독특한 점이요 바로 이 점에서, 적당한 수준의 도덕적 이상을 제시하고 스스로의 노력으로 도덕적 개선을 이루도록 호소, 격려, 강제하는 일반 사회 도덕 운동과는 달리 하나님의 절대적 요구인 율법 앞에서 먼저 절망케 한다는 점에서 교회는 일반 사회 도덕 운동과 길을 달리할 수밖에 없다. 교회는 세상에 대해 그들의 영적 죽음 상태를 전제하고 접근해야 하기 때문에—

사람의 눈에 아무리 큰 도덕적 차이로 보일지라도 영적 죽음이라는 절대적 절망 속에 있기는 마찬가지이므로— 믿음이 전제되지 않는 사회 일반에 대한 접근은 “죄인됨”에 대한 일깨움, 영적 죽음이라는 절대적 절망 상태에 대한 일깨움과 회개를 촉구하는 것으로 시작되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죄 사함과 성령 주심, 그로 말미암는 영적 새 생명과 내세의 영광이라는 유일한 가능성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교회는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본래적 사명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물론 교회가 국가나 사회에 대해 무관심해야 한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다스리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신 만큼(딤후 2:1 이하) 교회의 관심은 국가와 사회에까지 확대되어야 할 것이요, 특히 기독교인은 국민으로서 동료 시민과 더불어 도덕 갱신 운동에—비록 그 기대되는 효과가 근본적인 것이 아니라 제한된 것이라 할지라도— 적극 참여해야 할 것이나 부패한 세상과 인간의 악에 대한 교회의 접근은 그 입장과 방법과 자세에 있어서 일반 사회 도덕 운동과는 근본적으로 다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서 복음적 사회 접근이야말로 사회악에 대한 가장 근원적 치유책(治癒策)임을—비록 이것이 보편화될 수 없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들에게 선별적으로 효력을 나타내지만— 기억해야 할 것이다. 교회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는 때에 그 접근 방식이 일반 사회와 유사해져 감을 보면서 이것이 자칫 교회의 본질적 사명을 흐리게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다. 교회는 복음으로 세워지고 존재하며 복음을 전하는 존재인 것이다.

Ⅲ. 교회적 차원

바울 사도께서는 그리스도의 토대 위에 세워지는 교회에 대해 “너희는 성령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다.”(고전 3:17)고 하심으로써 교회의 성격을 한마디로 ‘성결’이라고 규정하였다. 에베소서 2:22에서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고 함으로써 교회는 점점 자라 성장하는 것임을 말하였다. 이러한 교회의 자람, 또는 성장이 규모 면에서만 확장이라 아니라 영적 성장, 성화 과정과 관계가 있다고 한다면(벧전 2:5) 심령의 새로움으로 계속, 항상 변화 받을 것을 말씀하는 로마서 12:2이 교회적 삶에도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교회는 개개인 신자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는 갱신의 요구를 받고 있으며, 더 나아가 그 내면과 삶에 있어서 성결에로의 부단한 갱신은 지상 교회의 필수적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더 나아가서 부단한 갱신의 요

구라는 것은 이미 성화의 점진성과 함께 부족한 모습을 전제하므로 현실 교회에 있어서는 부단한 갱신의 노력과 함께 현재의 부족한 모습이 공존한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이상적이요 완성된 모습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재림 전까지는 어떤 의미에서 정상적인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성경은 성화가 전제하는 연약과 부족의 정도를 넘어선, 즉 정상적 궤도 안에서 온전한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는 성화와는 달리 궤도를 이탈한, 심각한 타락의 가능성과 실재를 말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고전 3:17). 현재 한국 교회의 모습이 성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정도의 부족한 모습인가, 아니면 교회의 본질에서 벗어난, 교회의 성결을 파괴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할 만한 것인지는 개교회에 따라, 개인의 시각에 따라 평가를 달리할 수 있겠으나 대체로 한국 교회가 정상적 궤도에서 이탈해 있다는 데에는 대개 동의할 것이다. 또한 이로 인해 교회 내외(內外)에서 교회 갱신을 주장하는 외침의 강도가 점증하고 있으며, 특히 삶의 변화 내지 믿음의 현실 적용에 대한 요구가 강력히 주장되고 있다는 데에도 대체로 의견을 같이할 것이다. 정상적인 성화 과정 내에서도 온전한 성결에로의 부단한 갱신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한다면 교회가 그 정상적 궤도에서 상당히 벗어나 있을 경우, 이러한 요구는 지극히 정당하고 필요하다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삶의 부단한 변화에 대한 요구가 교회의 본질에 대한 올바른 이해 없이 주장될 때, 달리 말하면 단순한 도덕적 갱신 내지 삶의 변화에 초점이 모아질 경우, 교회는 더 심각한 위협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삶은 단순히 자기 개선 노력에 의한 도덕적 개선이나 적당한 수준의 윤리적 삶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믿음의 표현이요 열매이다. 따라서 근본적인 영적 변화, 영적 죽음 상태에서 생명으로 옮기운 절대적 변화를 전제하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사 이루시는 결과인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나타나는 비정상적 모습의 원인을 외부적 제도나 삶에서, 또는 인간 자신의 도덕적 능력에서 찾아서는 안 되며 반드시 믿음과 성령의 역사하심에까지 소급하여 찾아야 할 것이다. 믿음, 성령님의 역사하심 등의 영적 요인의 인식 없이 단순한 삶의 요구일 경우, 죄를 사하시며 성령님으로 거룩하게 살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제하지 않은 당위(當爲)로서의 율법 요구일 경우, 이것은 신자에게서 은혜를 의지함 없이, 성령님을 의지함 없이 자력(自力)으로 이루려는, 그러나 결코 그 목적에 이를 수 없는 헛된 도덕 개선 노력을

유발하게 되며 율법주의에 오도(誤導)하게 될 것이다.

일생 동안 신자에게서 부단히 요구되는 성화의 정상적 궤도에서 이탈한 교회에 요구되는 갱신 노력에 있어서나 유일한 삶의 개선의 가능성은 회개와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한 죄 사함과 성령님의 거룩한 역사하심에 있는 것이다. 신자에게 있어서 너무나 당연한 이 사실을 새삼스레 강조하는 것은 현하 사회 각 영역에서 뜻있는 이들에 의해 주장되고 있는 일반 사회 도덕 갱신 운동에 편승하여 자칫 인간 자신의 도덕적 능력에 근거한 도덕 개선 요구가 교회 내에까지 침투하여 소망 없는 율법주의에 오도하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이다. 신자는 오직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만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 표지감상

생명 싸개 속에 싸인 생명

최 석 진

(개혁주의신행협회 사무국장)

아무리 눈바람이 휘몰아쳐도 그것이 갯버들(땅버들)의 피어나는 꽃망울을 막지도 죽이지도 못한다. 창조주 하나님의 오묘한 창조의 섭리에 의해 솟털 같은 뽕얀 생명 싸개에 싸여 불가항력적으로 자라기 때문이다. 겨울과 봄의 길목에 서서 기어이 찬란하게 피어나려는 그 의지를 펼치고야 말 강인한 생명력은 참으로 신비롭다.

그 강인하고 신비스런 생명력은 흡사 믿음의 지조가 역척스런 성도를 닮았다. 보혜사(保惠師) 성령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믿음의 성도는 그 어떤 최악의 물결이 흉용하고, 환난의 바람이 불어 닥쳐도 넘어지지 않는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았기 때문이며 (롬 8:2), 아비가일이 다윗을 향하여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싸였을 것이요...”(삼상 25:29)라고 한 말과 같이 하나님의 생명 싸개에 싸여 보위(保衛)의 은총을 받기 때문이다.

우리 성도들은 어차피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사랑과 불가항력적인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찬란한 봄 (구원의 완성-천국의 영생 복락 등)을 맞이하고야 말 것이다.